

2016 중앙침례교회 수양회

교회와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혼란

- 일산의 모교회 이목사님, 수도침례신학교 수업시간의 해프닝
 - 천국(Kingdom of heaven)에 대한 논쟁
 - 한 자매님: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 여러 목사님들: 그런 무식한 소리를 아직도 하는 사람이 있냐고 면박
 - 천국은 임하는 거라고, 우리가 가는게 아니라고
 - 나라이(왕국이) 임하옵시며(Thy kingdom come..) 모르냐고
 - 천국/왕국은 우리가 갈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임한거라고... 이미 우리는 천국 안에 있는 거라고...
 - 이 자매님은 여러 목사님들의 주장에 혼란에 빠져버렸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혼란

- 하나님의 왕국(Kingdom of heaven or Kingdom of God)... 우리가 가는 곳인가요? 아니면 우리에게 임할 곳인가요?
- 이런 혼란이 신학교 수업시간에서조차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성경에서 kingdom 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성경에서 kingdom 이란 단어가 나올 때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이해하면 틀릴 때가 매우 많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혼란

- Kingdom은 그리스어 βασιλεια (바실레이아)를 번역한 단어.

- 뜻은 '통치영역'
 - Kingdom of God은 '하나님의 통치영역'이란 뜻
 - 문맥에 따라 이 통치영역이
 - »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일 수도 있고
 - »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나라'일 수도 있고
 - » '지금 셋째하늘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온 우주'일 수도 있고
 - » '하나님이 이상한 방식으로 통치하고 계신 기독교계'일 수도 있고
 - 문맥에 따라 이런 4-5가지의 통치영역을 가리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Fruchtenbaum, *Israelology*).

왕국 = 통치영역

- 눅 17:20-21
 -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21.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within you)**있느니라..."
 - 20절 -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나라 (메시아왕국-1번째단면)을 언제 세울건지 질문
 - 21절 - 영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영역'으로 대답하심

왕국 = 통치영역

- "너희 안에" (within you=**ἐντός ὑμῶν**=among you)=바리새인들 사이에 (among you)
 - 하나님의 왕국이 영적인 왕국 또는 천국을 가리킨다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드는 바리새인들 마음안에 그 왕국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됩니다.
 -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영역'임을 안다면, 당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뤄지는 영역이 '예수님 자신'이셨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무슨 일들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요 5:19).
 - 따라서,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그들 사이에 서 계신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왕국 = 통치영역

-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자주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요 2:19 -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20.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 데 사십육 년이 걸렸거늘 네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21.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 이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었음.
 - 아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첫번째 단면: Theocratic kingdom

- 1. Theocratic kingdom = kingdom of God
 - 출 19:6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a kingdom of priests)이 되리라.”
 - 이 왕국은 실제로 땅에 세워진 정치적인 나라입니다.
 - 이후부터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왕국으로서 다스리십니다. 왕국의 Mediators(kings - 다윗 왕~시드기야왕)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스리십니다.

첫번째 단면: Theocratic kingdom

-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정통치국가’라고 부릅니다.
 - 중재자들(대리자/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통치하시는 정치적인 한 국가.
 - 매우 독특한 헌법을 가지고 출발한 나라.
 -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되는 나라. 안식일을 어기면 안되는 나라.
 - 지금 누군가가 안식일을 어긴다고 그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 감옥입니다.
 - 하지만, 신정통치국가인 이스라엘에서는?
 - 안식일을 어기면 그 사람을 돌로 쳐죽여만 합니다. 그래도 감옥 안갑니다. (출 31:13-14; 출 35:2; 민 15). 그래야만 합니다.

첫번째 단면: Theocratic kingdom

- 출 31:13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지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하니라.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다 반드시 죽일지니...15.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일요일은 엄밀히 말해서 안식일이 아닙니다.
 - 안식일은 엄밀히 말해서 금요일 sunset~토요일 sunset 입니다.
- 민 15:32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에 안식일에 나무 거두는 자를 발견하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36.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데려가 돌로 그를 쳐서 그를 죽이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첫번째 단면: Theocratic kingdom

-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중재자들(왕들) 통해 다스리시는 나라” (신정통치국가-Kingdom of God)로 세우셨지만, 이 왕국이 유지되고 축복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었습니다.
 - 순종입니다. 율법에 순종.
 - 하지만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불순종으로 이 왕국이 멸망했습니다. 언제죠?
 - 바빌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갔던 그 때 - B.C.606 입니다.

첫번째 단면: Theocratic kingdom

- 비록 70년뒤(B.C. 536)에 이스라엘은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왕국’ 또는 신정통치국가가 아니었습니다.
 - 페르시아제국의 한 지방(a province)이었습니다. 이후 그리스제국의 한 지방이었습니다. 이후 로마제국의 한 지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그렇습니다.
 - 다윗왕때와 같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kingdom of God)이 아니었습니다.
 - 이 시기를 가리켜 ‘이방인의 때’라 부릅니다 - 단 2; 눅 21:24).

첫번째 단면: Theocratic kingdom

- 이스라엘은 예전 다윗처럼 독립적인 나라(하나님의 왕국)로서 자신들을 다스릴 왕(메시아)이 나타나기를 계속해서 기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통해 다스리시는 theocratic kingdom이 다시 이뤄지길 애타게 기다려왔습니다.
- 그래서 침례자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kingdom)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외칠 때
 -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계속 기다려왔던 그 왕국, 이 땅에 세워질 다윗때와 같은 정치적인 왕국, 하나님이 왕을 통해 다스리시는 그 왕국... 을 말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 그래서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하늘의 왕국’ 또는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아무도 한마디도 설명을 기록해놓지 않습니다.
 - 왜냐면, 다 아는 왕국이었던 때문입니다.

첫번째 단면: Theocratic kingdom

- 그래서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란 단어가 많은 경우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질 정치적인 나라, Messianic kingdom (theocratic kingdom)을 가리킵니다.
- 이 왕국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되었던 그 왕국입니다.
 - 사 9:7 “그의 정권과 화평이 번창하여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준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첫번째 단면: Theocratic kingdom

- 사 11:6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8. 젓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 단 2:44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 큰 백성에게 넘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 마 3:2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 cf. 신 30:1 “...주 네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내어 함께 살게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네가 그것들을 생각하고 2. 너와 네 자손들이 주 네 하나님께로 돌아와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3. 주 네 하나님께서 너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고 너를 발상히 여기사 주 네 하나님께서 너를 좇아 함께 살게 한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모아 되돌아가게 하실 것이요...”

첫번째 단면: Theocratic kingdom

- 막 1:15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기쁜소식)을 믿으라.."
- 눅 10:9 "그 안에 있는 병든 자들을 고치며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 눅 19:11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에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 마 6:10 "아버지의 왕국¹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첫번째 단면: Theocratic kingdom

- 마 20:21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원하는가?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주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는 것을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25.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
- 마 5:3 "염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5.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 눅 1:33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 눅 4:43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다른 도시들에도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여야 하리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보내어졌도라."

첫번째 단면: Theocratic kingdom

- 눅 8:1 "그 뒤에 그분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보이셨는데..."
- 눅 12:31 "오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 눅 13:29 "그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왕국**에 앉으리니."
- 눅 22:28-30 "너희는 내가 시험들을 당할 때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29.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한 왕국**을 맡기어 30. 너희가 내 왕국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며 또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재판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첫번째 단면: Theocratic kingdom

- 요 18:36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 행 1:6 “...주여, 주께서 이 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7.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너희가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 예수님은 ‘내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지는 그런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야. 너희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왕국이야...’ 그렇게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첫번째 단면: Theocratic kingdom

- 그 왕국이 언제 세워질지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그거 신경쓰지 마라고 꾸짖으셨습니다.
- 이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 이 지상에 세워질 그 왕국입니다.
- 고전 6:9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10. 도둑질 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란 말이 아닙니다.

첫번째 단면: Theocratic kingdom

- 구원받았으면 이런 죄는 지을 수가 없다... 란 말도 아닙니다.
- 구원받고 이런 짓을 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란 말도 아닙니다.
- 이들은 이 땅에 세워질 나라 (Messianic kingdom)에서 보상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 계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²

왕국의 뜻

- 왕국
 - Kingdom= βασιλεια = 'To rule, to reign = 다스리다'의 명사형(noun)
 - 다스림, '통치영역'
 - 왕국=kingdom=βασιλεια 바실레이아 = 통치영역
 -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 하나님의 통치영역이 가까이 왔다.
 - 이 하나님의 통치영역 (Kingdom of heaven/God)은 문맥에 따라 4-5가지를 가리킴을 볼 수 있음.

왕으로 지음받은 존재

- 왕국하면 떠오르는 그림?
- Theocracy= Theocratic kingdom = 하나님의 나라 (왕국) = 하나님의 통치영역
- 하나님의 왕국 = 하늘왕국 = 하나님의 '통치영역'
 - 초기 세대주의자들'은 이 둘을 다른 것으로 여기기도 함.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마음속의 왕국이고, 하늘왕국은 지상에 세워질 정치적인 나라 (메시아왕국)로 이해했으나,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왕국'이 메시아왕국인 경우들이 많이 나타남.
 -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더 큰 개념으로서, 하늘왕국을 포함한다는 식의 설명을 할 수 밖에 없었음.

왕으로 지음받은 존재

- '왕국'이 여러 '측면'을 갖고 있어서 문맥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합당함.
 - (Fruchtenbaum, *Israelology*; Alva McClain, *The Greatness of the Kingdom*; J. Dwight Pentecost, *Things to Come* 참조)
- 즉 '하나님의 왕국'이든 '하늘왕국'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나올때 마다 이것이 땅 위에 세워질 하나님왕국 (Theocratic kingdom, kingdom of God)인지, 죽어서가는 천국인지, 마음속의 화평한 상태인지... 문맥으로 구분해야 함.
- 마태복음은 특히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을 향해 기록된 책이어서, 하나님대신 하늘로 대체했음. '여호와'를 '아도나이'(주, 주인)로 대체해서 읽었듯이.

왕국의 두번째 단면: 영적인왕국

- God's rule (kingdom) in the heart of the believer
 - 초기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왕국'이고, 이 땅에 세워질 나라는 '하늘왕국'이라고 구분.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안맞는 구절들이 발견됨.
- 롬 14:17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성령님안에 있을 때 경험하게 되는 상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우리는 순종)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눈에 보이지 않는 왕국.

왕국의 두번째 단면: 영적인왕국

- 골 1:13-14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 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14.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이 왕국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 거듭난 사람들로만 구성된 왕국
 - 말씀묵상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왕국(하나님의 통치상태; 나는 순종상태)
 - 주님과 교제가운데 있으면 누리게 되는 왕국
 - 우리는 단지 포도나무의 가지에 불과함을 믿을 때 누리게되는 왕국
 -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누리게되는 기쁨의 상태..
 -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고, 육체를 부인할 때, 육체를 십자가에 넘길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화평한 풍성한 기쁨이 거하는 상태... 우리는 영적인 왕국을 누리는 것.

왕국의 두번째 단면: 영적인왕국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의 실재를 알고 순간순간 끊임없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그의 하루하루는 가슴 설레는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1. 자연인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이 없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체계는 미련하게 보일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고린도 전서 2장 14절)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나 - 내 인생의 왕위에 나 자신이 앉아 있음
* - 그리스도는 내 인생 밖에 계십니다.
* - 모든 일을 내 자신이 주관하므로 자유 의지와 혼란에 빠집니다.

2. 성령의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5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나 -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위에 앉아 계시며
* - 나는 내 인생의 왕에서 내리거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 -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왕국의 두번째 단면: 영적인왕국

3.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나 신앙 생활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

"형제들이 내가 선행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악인이니 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뜻으로 찍이고 밭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나 지 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 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고린도전서 3장 1-3절)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 나 - 영적생활의 부패에 나 자신의 잘못이 있고
- † - 그리스도는 내 영적생활의 황폐에서 회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 -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하므로 자주 죄의 혼란에 빠집니다.

세 그림 중에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음은 성경 속만한 생활의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